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10. 25.(수) 11:00, (지면) 2023. 10. 26.(목) 조간 배포 2023. 10. 25.(수) 06:00

해수부, 연말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

- 박성훈 해수부 차관, 수출기업 건의사항 청취 및 해외 판로 확대 논의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와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26일(목)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서 ‘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’를 개최했다.

박성훈 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동원산업, 사조대림, 신안천사김, 신라교역 등 주요 수산식품기업이 참석하여 수출 현장의 분위기와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며,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물, aT, 수협, 한국수산물무역협회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출 지원기관과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.

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인증(MSC* 등) 취득과 해외시장 개척에 선행하는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답하며, 정부도 수출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테니, 수출기업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체없이 알려달라고 당부하였다.

* MSC(Marine Stewardship Council) : 수산 자원 및 해양 생태계 보호 등 어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인증

한편, 이번 간담회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·광군제 시즌과 같이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가 예정된 미국, 중국과 연말에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일본, 아세안 시장을 겨냥해서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(11. 1~3.) 계기 해외바이어 특별 초청, 태국 현지 무역상담회, 온·오프라인 집중 마케팅(예시: 미국 H-Mart, 중국 타오바오 판촉) 등 연말 막바지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.

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“민생 현장의 어려움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수산식품기업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해외 영업사원의 자세로 기업과 함께 뛰면서 수출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	책임자	과 장	강희정 (044-200-5480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훈 (044-200-5483)